

석유화학기업 급여 상위권 싹쓸이!

SK가스 1위에 한화·LG·호남·SK 16-23위 ... 555사 월평균 296만원

2005년 상반기에 상장기업 가운데 SK가스 직원들의 주머니가 가장 두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은행 등 금융사와 지주사, 현대건설, 대림산업, 한화석유화학, LG석유화학 등 주요 건설·화학기업들의 임금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마다 연말에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하는 삼성전자도 상반기 직원보수 순위에서는 고작 80위권에 머물렀다.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55개 상장기업이 2005년 상반기에 지급한 직원(임원 제외) 1인당 월평균 급여가 29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가 가장 많은 상장기업은 SK가스로 상반기에 직원 한사람에게 평균 4300만원(월 717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GS홀딩스 등 3개 지주사가 각각 3900만원(월 650만원), 3700만원(월 617만원), 3600만원(월 600만원)으로 나란히 최상위권에 포진했다.

지주사들의 급여수준이 높은 것은 지주사 특성상 직원은 100명 이내로 비교적 적은 반면, 직급은 높고 공인회계사(CPA),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POSCO는 상반기에 직원당 평균 3310만원(월 552만원)을 지급해 상장기업 중 8번째로 많았고 공중과 방송사 SBS가 3300만원(월 5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대체로 은행과 건설, 화학기업들의 보수가 후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급여 상위 25대기업에는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고도 기업은행 11위(월 533만원), 외환은행 14위(월 510만원), 하나은행 19위(월 500만원), 국민은행 25위(월 483만원) 등 4개 은행이 포함됐다.

또 현대건설 10위(월 538만원), 대림산업 13위(월 517만원), 고려개발 17위(월 503만원) 등 건설기업 3사와 한화석유화학 16위(월 508만원), LG석유화학 20위(월 498만원), 호남석유화학 22위(월 496만원), SK 23위(월 494만원) 등으로 화학기업들도 대거 포진했다.

대한도시가스(월 510만원)와 LPG 수입판매기업 E1(월 500만원)도 15위와 18위에 올라 SK가스와 함께 에너지 관련기업들의 높은 임금수준을 반영했고, 비료 생산기업 남해화학(월 498만원)도 2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간판기업 삼성전자는 평균 2440만원(월 407만원)으로 81위로 처졌다. 삼성전자가 해마다 하반기(연말)에 집중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2004년 삼성전자가 지급한 연간 급여는 평균 7130만원에 달해 매출 기준 100대 상장기업 중 최대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가운데는 삼성중공업 27위(월 483만원), 제일기획 44위(월 447만원), 삼성정밀화학 51위(월 433만원), 삼성엔지니어링 59위(월 427만원) 등이 삼성전자를 크게 앞질렀다.

이밖에 SK텔레콤, LG전자, 현대자동차는 상반기 급여순위에서 28위(월 480만원), 32위(월 468만원), 142위(월 350만원)를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5/08/23>